

“명상 통해 마음의 병 치유”

한국명상치료학회 14일 창립 학술대회 개최 인경 스님 “현대인들 심리치료에 큰 도움 될 것”



군 입대 5개월 만에 정신과에 입원한 모병장(21). 6살 때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과 어머니의 사업 실패 등을 겪으며 우울증을 앓아 온 그는 군대에서 자해소동까지 벌여 정신치료를 받게 됐다. 그의 치료를 맡은 김말환 교수(동국대 상담학과)는 ‘염지관(念止觀) 명상수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병사와 상담을 시작했다.

염지관 명상수행은 몸의 감각을 느끼고 관찰함으로써 고통을 발생시키는 마음의 현상 자체를 자각하고 수용하는 명상법을 말한다. 느낌을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지켜보는 3단계를 거치며 정신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김 교수를 찾은 병사 역시 자신의 어

려움과 마음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마음의 병을 이기고 병원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명상’은 오늘날 수많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심리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인 ‘마음’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상을 이용한 심리치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학술적 토대를 쌓아갈 한국명상치료학회가 4월 14일 창립했다. 동국대학교 다량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사진)이 원장에, 김말환 교수가 부회장에 각각 선출됐다.

학회 창립을 이끌어 온 인경 스님은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명상은 현대인들의 심리치료에 큰 도움이 되며, 이미 서구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소위 ‘명상의 시대’라고 할 만큼 현대인들은 명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명상치료는 전통적인 명상 수행과는 달리 심리학과 불교라는 두 영역이 만나 이뤄지는 것이므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명상치료학회는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학술모임 조직, 논문집 <명상치료연구> 발간, 명상치료 교육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상치료를 연구 지도하는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에서, 학회 차원의 공인된 ‘명상치료사증’을 발급하는 등 명상치료 자격증 제도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명상치료학회가 4월 14일 동국대 다량관에서 창립했다.

창립총회에 이어 열린 창립학술대회에서는 김말환 교수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군인의 치료과정을 통해 ‘염지관 명상의 심리치료 사례연구’를, 안양규 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사고의 역기능과 그 해결: 붓다의 가르침과 아론 벡의 인지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창립총회와 학술대회에는 명상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전문가와 학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회화학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불화(佛畵)라는 용어와 신앙심을 가지고 제작된 불교예술을 지칭하는 화불(佛畵)이란 용어는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허흥식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대학원)는 4월 1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동국포럼(이사장 정재철) ‘고려화불 특별초대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이날 ‘고려 화불에서 불화로, 다시 화불로’

여수령 기자

‘불화’ ‘화불’ 뭐가 다르죠?

허흥식 교수, 동국포럼서 차이점 발표

“불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법과 신앙심이 일치되어야 한다”

허 교수는 “불화란 불교와 관련된 회화라는 넓은 의미로, 화불은 독립된 부처로 신앙되는 기능이 있다는 뜻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세미나에서는 이인자 명예교수(경기도)가 ‘고려화불과 고려불화 재현의 의의’를, 정우택 교수(동국대박물관장)가 ‘고려불화의 전통과 현대적 해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편, 고려화불 복원에 힘쓰는 혜담 스님(계백사 주지)의 작품이 선보인 ‘고려 화불 특별전’은 18일부터 24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1실에서 열렸다.

“화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법과 신앙심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화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법과 신앙심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화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법과 신앙심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화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법과 신앙심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화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법과 신앙심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화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법과 신앙심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화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법과 신앙심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화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법과 신앙심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여수령 기자

‘순백의 깨침’ 보러오세요

화장사, 가침박달꽃축제 개최 5월 5일까지

청주 화장사(주지 무진)가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순백의 ‘깨침의 꽃’으로 꽃 공양을 올린다. 화장사는 가침보존회와 함께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제5회 가침박달꽃축제’를 개최한다.

가침박달꽃축제는 학술세미나로 막을 연다. 4월 26일 오후 3시 명암타워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박재인 교수(충북대 산림학과)가 가침박달나무의 생태학적 특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4월 30일 오후 1시 화장사 대웅보전 앞 마당에서는 초의차문화연구원(이사장 여연) 충북지부의 창립식과 다도시연대회가 열린다. 5월 4일 오후 2시 화장사 마당에서는 전통음식경연대회가 개최된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꽃씨 뿌리기, 야생화 심기, 그림 그리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가침박달나무는 세계적 희귀수목으로, 4-5월경에 순백색의 꽃을 피운다. 화장

사 뒷산에 조성된 만여 평의 가침박달나무군락지는 충청북도 천연유전자원보호림 제32호로 지정돼 있다. (043)255-5758

혜철 대전총부지사장

무크지 <불교와 상담> 창간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택)이 불교상담 연구 성과를 담은 부정기 간행물 <불교와 상담>을 창간한다.

4월 25일 출간된 창간호에는 지난 1월 열린 ‘제3회 불교와 상담 워크숍’ 발표와 토론 내용이 담겼다. 권경희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연재와 김남선 교사(구암중학교)의 ‘청소년 불교상담 프로그램’도 실린다.

개발원은 4월 2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창립 17주년 기념법회 때 회원들을 중심으로 창간호를 배포할 예정이다. (02)737-8803

여수령 기자

핀란드서 한국불교 전시 화엄사, 간화선 다도 등 소개

구레 화엄사(주지 종삼)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에서 한국불교와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했다(사진).

화엄사 포교국장 대우 스님의 진행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현지인을 상대로 간화선과 다도, 불구전시, 화엄사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대우 스님은 “참가한 현지인들은 핀란드에 처음 소개된 한국불교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추후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불교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화엄사는 앞으로 핀란드 정부와 지속적인 교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제3회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필지언정 삼촌에 말 잘하는 영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며 입직할 때까지 27년 동안 오대산문을 나서지 않았던 한암 대종사.

조계종 초대 종정인 한암 대종사의 선사상과 수행가풍을 재조명하고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수행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제3회 한암 대종사 수행학림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평창 월정사(주지 정범)에서 열린다.

화엄사상의 중심적인 오대산에서 역대 큰스님들의 유훈을 계승하고 화엄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화엄경 대강백 스님들을 초빙해 열리는 수행학림 첫째 날은 입제식을 시작으로 강의와 저녁예불, 나를 뒤는 108배로 진행된다. 둘째 날은 참법 및 포살, 삼보일배, 좌선법 강의 및 지도, 철야정진으로 이어지며 셋째 날 전나무 숲길 포행 및 지장암 순례, 한암대종사 탄신제, 한암대종사 선사상 국제학술세미나로 막을 내린다. (033)332-6661

남두우 기자

제1회 어린이 방생법회 안내

안성 도피안사에서는 이번「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기쁨을 깨닫게 하여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하는 불심(佛心)을 열어 주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어린이 방생법회」를 처음 개설, 봉행하오니 어린이 교육에 뜻있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 ◆ 방 생 장 소 : 안성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경내「환희지(歡喜池), 이구지(離垢池), 선혜지(善慧池), 법운지(法雲池)」
- ◆ 시 간 : 불기 2551(2007)년 5월 6일 (일) 10시30분
- ◆ 참 가 비 : 1가족당 10,000원

(참가하시는 가족에게 점심공양과 선물을 드리며,장소관계로 순서에 의해 50가족만 접수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에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2. 어항이나 집에서 기르던 물고기는 방생할 수 없고, 또한 서로 잡아먹는 물고기도 방생할 수 없습니다.(방생 물고기 준비는 주최 측에서 함)
3. 방생을 해보면 커서 사냥이나 낚시를 인생의 취미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4. 자연생태에 대한 생태학자의 강연이 있습니다.

주 최 : 안성 도피안사 · 사찰생태연구소
후 원 : (재)한택식물원 · 서일농원

연 락 처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오설리 1178-1(우 456-893)
- 전 화 : 031)676-8700 / 전 송 : 031)676-8704
- Home Page - http://www.dopiansa.or.kr • E-mail : dopiansa@kornet.net

영인본 불교원서 보관본 보급안내

귀의 참모하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항상 이용해 주시는 스님, 불자님들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항상 불자님들의 곁에서 불서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원서목록 영인본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스님 및 불자님들의 문의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보관하고 있는 책자를 보급합니다.

보급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나 양해 바랍니다. (선착순 접수)

문의전화 : 02)2004-8219 (담당 : 박원범)

도 서 명	저 자 명	보관수량	가 격
望月佛敎大辭典(全10권)	望月信亨	1	350,000
佛光大辭典(全8권)	臺灣佛光寺	1	200,000
佛書解說大辭典(全14권)	小野玄妙	2	350,000
新修大藏經 索引(全31권)		1	900,000
祖堂集索引(全3권)	柳田聖山	2	100,000
慧遠研究(全2권)	木村英一	1	50,000
高麗華嚴變相圖(고급한지인쇄본)		2	580,000
韓國近世佛敎百年史(全2권)		30	55,000
漢語大辭典		1	500,000
선문염승(불교문화연구원)	木村英一	1	200,000